

내 이야기가 처음 웹툰이 되는 날

WAKE · 내 안의 이야기를 깨우다 / ACT 회원 자율 실습



이 책으로 완성할 것

일상의 작은 장면으로 만든 4컷 웹툰 한 편

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, 무엇을 보여줄지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.

김예은 · 한국AI작가협회 / NOVAEDU

먼저 읽는 한 편 · 우산의 반전

아래는 교육용 창작 예시입니다. 실제 수강생의 경험이 아닙니다.



1 · 상황

수미: “아, 우산을 두고 왔네.”

2 · 행동

미나: “같이 쓰고 가요.”

3 · 반전

둘: “앗, 신발은 못 지켰다!”

4 · 여운

수미: “그래도 같이 웃어서 좋네요.”

같은 장면도, 가까이 보면 달라져요

샷은 화면이 대상을 얼마나 가까이 보여주는지 정하는 선택입니다.



멀리: 어디인지 보여주기



중간: 행동과 관계 보여주기



가까이: 표정에 집중하기

학습을 위한 가상 장면 · AI 제작 삽화

읽는 사람의 질문에 맞추기

“어디인가?”가 중요하면 배경을 함께, “무엇을 했나?”가 중요하면 손과 몸을, “어떤 반응인가?”가 중요하면 표정을 보여주세요.

내 이야기에서 표정을 크게 보여줄 컷 / 이유

서로 다른 생성 예시에서는 가방 같은 소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작품에서는 내 기준 카드와 다시 대조합니다.